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22>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했다.
 “가섭 존자는 아난에게 법을 전했다. 그렇다면 알려보아라. 달마는 누구에게 전했다는가?”
 학승이 물었다.
 “2조가 골수(髓)를 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2조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
 조주 스님이 거듭 말했다.
 “달마의 밖에 있는 자는 가죽(皮)을 얻고 안에 있는 자는 뼈(骨)를 얻었다는 말이 있다. 자, 알려보아라. 다시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을 얻었느냐?”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골수(髓)를 얻는 도리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다만 가족을 보고 알아라. 노승은 이곳에서 골수(髓)조차 세우지 않느니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골수(髓)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게 해서는 가족조차 찾을 수 없다.”

師示衆云 迦葉傳與阿難 且道 達磨傳與什麼人
 問 且如二祖得髓又作麼生
 師云 莫謗二祖
 師又云 達磨也有語 在外者得皮 在裡者得骨 且道 更在裡者得什麼
 問 如何是得髓底道理
 師云 但識取皮 老僧者裡髓也不立
 云 如何是髓
 師云 如磨皮也摸未著

이 선문답에는 3가지 주제가 차례로 드러나 있다. 첫째는 2조 혜가 스님이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한 문답이다.

조주 스님은 2조 혜가 스님을 비방하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왜냐하면, 선사들은 대체로 무엇을 얻은 것은 없다. 어떠한 사실을 깨달았으나 깨달은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화제는 무엇이 골수적인 법인가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조주 스님은 골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으니 다만 가족을 보고 골수를 깨우치라고 말했다. 조주 스님은 골수조차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이 골수법인가? 선의 이치를 아는 자라면 원래 골수법은 있지도 않고 골수라는 말도 필요 없다고 설할 뿐이다.

세 번째 화제는 학승의 어리석은 질문에 질책을 주고 마치는 것이다. 앞에서 그토록 자세하게 골수에 대해 말했지만 막판에 가서 또 “골수가 무엇인가”하고 묻고 있는 것을 질책한 것이다. 그렇게 입이 닳도록 골수가 없다 해도 증생은 끝없이 골수에 집착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교정해준 것이다.

누가 특별한 자리에 있는가?

학승이 물었다.
 “그와 같이 당당하게 계시는 것이 화상의 바른 자리(正位) 아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지만 이것을 수긍하지 않는 자가 있음은 아는가?”
 학승이 말했다.
 “그렇다면 특별한 자리(別位)가 있다는 말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누가 특별한 자리(別位)에 있는 자인가?”
 학승이 말했다.
 “누가 특별하지 않는 자리(不別位)에 있는 자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뭐라고 부르든지 그대에게 일임하겠네.”

問 與麼堂堂 豈不是和尚正位
 師云 還知有不肯者麼
 學云 與麼即別有位
 師云 誰是別者 誰是不別者
 師云 一任叫

선사들은 무엇을 얻는 것은 없다

깨달았으나 깨달은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

여기서 말하는 정위(正位)는 바른 자리, 바른 자세, 바른 지위 등의 뜻이 있다. 별위(別位)란 정편(正偏)을 떠난 도(道)의 본래 자리를 말하고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 안주하는 자리이다. 이 대답은 조주 스님이 범상에 얽은 모습이 마치 부처님 같고 모든 성인 같은 모습이 아니겠느냐고 학승이 조주 스님을 온당찬 부처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답이 시작됐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자네의 그런 표현은 좋아. 평상시 내가 말하던 바와 같네. 그러나 자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일면 그것을 수긍하지 않는 자가 있음도 아는가?”하면서 “선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자네의 말이 틀리게 되는데 그 이유를 아는가?”라고 점검해 본 것이다.

그러자, 학승이 “그렇다면 별도의 자리(別位)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하고 예리한 반문을 펼쳤다. “특별한 자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틀린 것인데, 노화상께서 지금 특별함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하고 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반문성 질문은 선사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다. 단 한 번의 행

위로 막고 찌르는 것을 동시에 행하는 선택들의 전형적 질문이다.

그러자, 조주 스님 역시 오랫동안 경험이 풍부한 노화상이라 학승의 공격에 쉽게 물러서지 않고 거듭 예리한 답변으로 반격했다. “누가 특별한 자리에 있는 자란 말인가?”하고 점검을 가했다. 학승 역시 끝까지 왕자(王子)의 패기를 잃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특별하지 않는 자리(不別位)에 있는 자란 말입니까?”하고 반문해 바른 자리라든가, 바르지 않는 자리 따위는 원래 없지 않느냐고 일갈을 토했다.

그때서야 조주 스님은 점검을 끝냈다. “그렇기는 하네만 그 자리는 무엇으로 불러도 좋은 거야” 하면서 선사들의 자유자재하게 쓰는 경지를 여유 있게 해줬다. 이러한 대답을 통해 학승은 장차 후배와의 선문답에서 또한 자유로운 방편을 구사하게 하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상상(上)근기는 한 번에 문득 바뀐다만 하(下)근기가 올 때는 어떠한가?”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는 상상근기인가? 하하근기인가?”
 학승이 말했다.
 “원컨대 화상께서 대답을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야기의 주인공이 없는 것이잖아.”
 학승이 말했다.
 “저는 7천리 바깥에서 왔습니다. 막 다루지 말아주시지요.”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가 그렇게 묻는데 어찌 막 다루지 않겠는가?”
 학승은 하룻밤 자고 곧 떠나버리고 말았다.

問 上上一撥便轉 下下人來時如何
 師云 汝是上上下下 云 講和尚答話
 師云 話未有主在 云 某甲七千里來 莫作心行
 師云 據你者一問 心行莫不得麼 此僧一宿便去

여기서 확인은 “하하근기가 올 때 선사는 어떻게 가르침을 주는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지만, 조주 스님은 하하근기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부득이 자신이 하하근기라고 밝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직접 가르침을 주겠는데, 찾아온 객승은 자신이 상상근기인지 하하근기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조주 스님은 더 이상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규 교수의 선어록 해제 ④ 전법보기

최고의 북종 전등사서

〈崔古〉

보리달마를 시작으로 하는 중국 선종은 이후 8세기 초까지를 소위 초기선종시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시대에는 이미 번역된 <유마경> <능가경> <열반경> <반야경> <좌선삼매경> <선비요법경> <화엄경> <법화경> <사익경> 등 다양한 선경을 바탕으로 해 선법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던 시기이다. 특히 <능가발타라보경>의 전승을 중심으로 능가종의 전통이 수립되면서 번역자인 구나발타라를 시조로 하는 일군의 선종이 등장했다. 소위 북종의 전통을 계승한 일파에서는 <능가인법지> <전법보기>(713) <능가사자기>(716)의 전등계보를 내세웠다.

이와 같은 모습은 문황에서 방대한 선문헌의 발견과 더불어 보다 확실해졌다. 20세기 초에 문황에서 발견된 선문헌의 가치를 처음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보고한 사람은 일본의 아부키 게이키(矢吹慶輝)이다. 그는 <삼계교연구>(1927) <명사어운>(1930) <명사어운해설>(1933) 등을 통해 문황 불전의 연구에 큰 업적을 보였다. 또한 스즈키 다이세츠 박사의 <교간소실설>(1936) 등을 바탕으로 해 <강좌돈황>의 여덟 번째 시리즈로 <돈황불전과 선>(1980)의 연구서가 출현됐다. 그 기초 자료는 대부분 영국의 스타인 발견본 및 프랑스의 페리오 발견본이었다.

이 가운데 부정권을 중심으로 설계된 <선요경>은 경전의 형식을 취한 8세기 초기의 선품이다. 이 밖에 <대승무생방편론> <대승북종론> <이입사행론> <달마선사론> <절관론> <대승무생방편론>, 경조두비의 <전법보기>(713), 정각의 <능가사자기>(716) 등 수많은 자료가 발굴됐다.

이 가운데 <전법보기> 1권은 소위 북종의 전등사서로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이다. 그 성립연대는 상세하지 않지만 개원 초년(713)으로 추측되며, 12단락으로 나뉘어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귀경제 2서문: 진리는 문자와 경문과는 달리 무상승(無上乘)의 심지를 전하는 사람만이 얻는다. 불세존-아난-팔정지-나바사 등 인도의 전통을 서술하고, 또한 보리달마-혜가-승찬-도신-홍인-법어-신수로 이어지는 중국의 부법상승(佛法相承)을 서술한다. 세간에 유포된 <달마론>에 대해 비난한다. 3. 목록 4. 보리달마: 승신의 달마에 본격적으로 사사한 사람으로서 도육(道流)과 혜가의 이름을 언급한다. 혜가의 단비구법(斷臂求法)에 대해 달마는 방편으로써 혜가의 마음을 곧바로 깨우쳐준다. 혜가에게 심요로서 <능가경>을 전수한다. 벽관과

사행에 대해 비판한다. 달마가 북위의 불교계로부터 기피돼 독해를 받는다. 천화할 날에 승운이 총령에서 서쪽으로 돌아가는 달마를 만난다. 5. 혜가: 달마가 서쪽으로 돌아가는 후에 혜가가 소림사에 주석한다. 혜가의 교화방법은 상대방의 모든 근기에 응했으며 그것을 기록한 제자가 있었다. 개요한 제자로서 향가사, 화공, 요거사 등 다수가 있다. 승찬에게 <능가경>을 전수해 4대 이후에는 형식화될 것을 예언한다. 6. 승찬: 북주파멸 때 10여 년 동안 산에 은거한다. 개황 초년에 정선사와 함께 환관공산에 은거해 시자였던 보월을 제도한다. 7. 도신: 개황 연간에 환관공산의 승찬에 사사해 깨진다. 도적들에 포위됐을 때 자사에게 <반야경>을 염송토록 한다. 기주 쌍봉

산에 주석하자 법현 및 선복 등이 참여한다. 문인에는 항상 좌선을 장려한다. 입멸에 즈음해 홍인에게 전법한다. 두정륜이 비문을 찬술한다. 8. 홍인: 도신으로 사사할 때부터 작무와 좌선을 장려한다. 후에 많은 귀족들이 참문한다. 교화의 방법으로는 질문에 상응해 그대로 도에 이르러 간다. 법어에 법을 전수한다. 9. 법어: 송산 소림사에 주석하자 동도의 고덕인 혜단이 참문한다. 교화의 방법으로는 방편을 활용해 직지인심 시킨다. 입적 때 문인들로 하여금 신수에게 참문하도록 권장한다. 10. 신수: 홍인으로부터 전법한 후에 오랫동안 개법하지 않다가 법어의 입적 이후에 비로소

개법한다. 후에 측천무후가 귀의한다. 입적하자 중종은 도문사를 세워 대흥선사라는 호를 내린다. 11. 총론: 진리의 체득은 문자언어만으로는 도달하지 못한다. <원각경>에 대해 비판한다. 달마는 경문을 떠난 입장에서 직접적인 실천법을 설하고, 우수한 제자에게만 법을 전한다. 홍인 이후의 법문은 널리 열리고 염불정심(念佛淨心)의 방편이 활용된다. 그러나 최근 수혜들이 우둔한 자가 많은 것은 혜가의 예언이 통한 것이다. 이 책의 편집은 일찍이 친운의 명에 따른 것이다. 신수 문화의 훌륭한 모습은 <능가경>의 소설에 해당한다. 12. 종남산귀사대통도수회상탑문: 이와 같이 <전법보기>는 소위 북종의 법맥을 정통으로 간주하는 전등사서로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734년 황대의 종론을 전후로 해 남종이 세력을 확보하면서부터 더 이상 계승되지 못했다.

이후로는 <돈황본단경>(780) <보림전>(801) <조당집>(952) <경덕전등록>(1004) 등으로 계승되는 남종의 정통을 주장하는 전등사서가 출현했다.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김지하 시인의 달마도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 과 목	교육 기 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당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유통소발행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 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 교육원

영 남 교 육 원 055-543-3155	부 산 교 육 원 051-441-0111	울 산 교 육 원 052-260-1037
해 남 교 육 원 063-254-5529	지 리 산 연 수 원 063-635-5112	제 주 교 육 원 064-755-7588
대 구 교 육 원 053-566-1116	해 운 대 교 육 원 051-757-9990	충 청 북 부 교 육 원 043-263-9966
광 주 교 육 원 062-672-5432	경 남 서 부 교 육 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1. '적중도'와 '효과성'을 최고로 달성시킨 '2010 완결보정판' 육임 상담용 종합CD프로그램입니다. 기존 판매된 「I·II·III·완결판」과 실비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2. 신규 구입 가격은 500만원입니다. 매일 매시간별 방문자에 대한 시보(時報)·래정(來情)·특기정황은 물론 작사귀/병귀/신병 가택부정/산소탈이 세세할 뿐 아니라 재(齊)의 효과여부 및 예방법까지 적시되어 있어 신뢰성을 담보 하고 있습니다.
3. '육임활용서책' 만을 구입·교환하실 분은 옆 라벨에 적시된 - 수록활용서책목록 - 중에서 고르십시오. 각 최정전 증보·개정되어 가히 '비급'이라 할 만 합니다.
4. 육임종합합습서 '효사육임강론' 上·下 권도 5월말 현재 「2010중보완결판」으로 나와 실비 교환중에 있습니다.
5. 방문자별 각 사정 자동적시 화면처리 / 전체 원터치 기능 / 초보·문외한도 즉시적 활용 성과획득보장 / 미리 보고 먼저 판단하며 / 예비성(메모) 또한 백미입니다!



구입·승인·교환 안내 : (051)908-8683 담당 : 진 민 경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배상
www.taotemple.net